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世上 옛보기”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100여명



의정부시 보건소는 지난22일 거동불편 장애인들과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지난 22일,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들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실 등록대상자 100여명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은 가운데 송산동 부근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 답답한 방안에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하여 신선한 가을 들녘을 산책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맛있는 점심도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방문보건사업은 소외되고, 어려

운 환경에서 불편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분들을 위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에게는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빛과 같은 사업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사람의 거동불편자를 위하여 차량봉사자, 도우미, 간호인력 등 많은 도움이의 손길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상자들에게는 더욱더 기다려지고, 소중한 외출이다.

또한, 이날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사선생님의 진찰과 최근 유행하는 독감을 접종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그동안 움직이지 못해 엄두도 내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시는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데 힘을 보태고 밝혔다.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핸드폰 속에 경기도가 들어갔다

모바일 경기'GG 매거진' 시범서비스 오픈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행정정보 모바일 서비스인 모바일 경기 'GG 매거진'은 정보이용료를 무료로 하여 지난 28일 오픈했다

경기도와 SK텔레콤이 지난 7월 모바일 서비스 시행을 위한 사업 의향을 교환했고, 그 결과로 'GG 매거진'이라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분야에서 최초로 개시했다.

GG 매거진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민 편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구현한 것으로 핸드폰 소유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찾아라 추천! 맛집', 여행·관광정보는 '우리 여행가요', 일자리 제공관련 취업정보는 '일자리 있어요', 문화행사·스포츠일정·재테크정보 등은 '해피 라이프', 지역테마 뉴스·긴급전화번호 정보 등은 '우리동네소식', '공짜 별소리', 이벤트 정보는 '대박 zone' 등으로 재미있게 구성

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031 + [통화 버튼] → 도착하는 단문메시지에서 [확인버튼] → [GG 매거진] 다운로드 후 서비스 이용시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GG 매거진' 지구들이 아이폰만 구동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넷(http://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오픈된 GG 매거진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1인 1휴대전화 가입자 시대를 맞아 실속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으며 2005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본격적인 m-Government 시대가 예고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토 뉴스



삼성텔레스(주)용인연구소 착공식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삼성텔레스(주) 용인연구소 착공식에 참석하여 삼성텔레스 레이다 연구소의 뜻 깊은 기공식을 축하하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삼성텔레스와 같은 첨단기업들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5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21일 의정부경찰서에서 제5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유

공자 포상수여 및 경찰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훈훈한 동료애 實踐하는 의정부교도소

가족의 암 투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동료 돕기 나서

의정부교도소(소장 金健輝)가 2가족이 암투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었다.

25일 의정부교도소 김건휘 소장은 부인이 암투병중인 직원 3명에게 동료직원들이 정성들여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성금을 전달받은 김OO 교위 등 3명은 길게는 2년 전부터 짧게는 6개월 동안 직장안과 선암 등으로 투병중인 부인의 병간호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동료직

원들이 지난 10월 초부터 자발적으로 총 8백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이날 전달한 것이다.

전달식에서 김건휘 의정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을 전달하면서 “가족의 장기간 투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동료 직원들에게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해준 점에 감사한다”며 “동료직원들의 정성으로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며 격려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 인구 40만명 돌파 초입기

시승격 41년만에 6배이상 人口 증가

의정부시가 시 승격 41년만에 을 연말에 인구 4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난 9월말 현재 39만5천726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39만2천408명보다 3천318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1963년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시로 승격된지 41년만에 당시 6만2천239명보다 6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신곡2동의 경우 지난 2001년 12월말 3만7천135명이던 인구가 지난 9월말 현재 4만7천969명으로 1만834명이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는 올 연말까지 호원, 장안, 신곡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자가 이뤄질 경우 4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40만명째 출생자에게는 꽃다발과 함께 40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전임자에게는 같은 액수의 식기세척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 및 민락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시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하고 각종 행정기관이 입주해 기존의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경찰서 인사발령 신고식

의정부경찰서(서장 김덕기)는 지난 27일 오전, 서장실에서 소

국유지 소송이착륙한 토지브로커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29일 국유지 소송을 통해 취득한 뒤 다시 되팔아 수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토지 브로커 69살 정모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국유지 천여평을 가져 소유자를 내세워 소송을 통해 3천만 원에 산 뒤다시 5억 7천만 원에 되팔아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에 사는 K모 변호사가 깊숙히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K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변 확보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양주와 포천 등지에서도 이같은 수법으로 국유지를 취득해 되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석원 2명에 대한 인사발령 신고식을 가졌다.

이날 김덕기 서장은 훈시를 통해 “새로운 임지에 속히 적응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정부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사발령 대상자는 호원 파출소 이상혁 경장이 생활안전계로 발령 받았으며 파출소소 채규정 순경이 호원파출소로 발령됐다.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11월엔 정보도서관으로 오세요!

의정부정보도서관 원화전시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

의정부정보도서관은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막바지에서 풍성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고요한 계절의 행복한 동화이야기”라는 주제로 원화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안데르센 동화를 포함하여 총 50여점의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원화 전시회는 그림책의 삽화라는 특징을 살려 보다 쉽게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형극, 마임극, 아동극

등의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독서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체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북아트를 배워보고 직접 자신의 책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모든 행사는 무료이며, 전시회를 제외한 행사는 사전 참가접수를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www.uilib.net)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 828-4842)하면 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다린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모발의 혁신 퍼슨 코리아(주)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드립니다”

PERSON KOREA

취침, 운동, 사우나 OK!!

퍼슨 심는가발맞춤점

대표: 1544-5868 본사: (02)3143-6474~6

- 고객만을 위한 1:1 상담, 시술
- 양질 100% 인모 심는 가발
- 다양한 신제품
- 오랜경력의 스타일링
- 전국지점망 A/S
- 타사제품 관리, 수리

전국 대표 : 1544-5868 / 문의 : 031) 848-6476 / 지점장 : 김 나 영 www.personhair.co.kr